

포스트모던에 아시아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감독 겸 제작자 푸옹 당, 포스트모던과 함께 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빈, 2009년 4월 20일 - 포스트모던이 포스트모던 아시아 부서와 함께 미디어 비즈니스의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포스트모던 아시안(www.postmodernasian.com)은 TV 광고, 영화, 정보광고, 영화 예고편 및 다큐멘터리 등 국내외의 아시아 관련 미디어 프로젝트를 취급합니다. 새로 생긴 아시아 부서는 다양한 아시아 시장 출신의 음반 레이블과 아티스트를 위해 라이브 뮤직 콘서트와 버라이어티 쇼 역시 취급합니다.

포스트모던 아시안은 풍부한 창조력을 자랑하는 감독 겸 제작자 푸옹 당이 이끕니다. 푸옹 당은 20년간 아시아 시장의 TV 광고, 중국, 베트남, 캐나다와 미국 시장의 정보 광고 및 뉴스 프로그램을 감독 및 제작한 경험을 지닌 베테랑입니다. 베트남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성장한 ‘국제적 역마살’의 푸옹 당은 전세계 곳곳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푸옹 당은 포스트모던의 마이클 보이드와 포스트모던 크리에이티브(www.postmoderncreative.com)와 함께 전세계의 아시아 시장 및 일반 시장을 공략할 창작팀을 이루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푸옹은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밴쿠버의 이미지 원 엔터테인먼트의 CEO 겸 회장직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포스트모던은 항공사 기내영화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로서, 대부분의 할리우드 영화사에 편집, 캡션, 더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및 미국 관객을 겨냥한 현재의 미국 영화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아시안은 포스트모던 그룹이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영화의 포스트 프로덕션 서비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셈입니다. 포스트모던의 마이클 보이드는 말합니다. “새로운 포스트모던 아시안 부서 덕에 기존의 텔런트 베이스는 물론 새로 국제적 편집자들과 그래픽 아티스트를 소중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포스트모던의 푸옹 당은 베트남, 중국, 러시아에서 수 편의 다큐멘터리, 3D 애니메이션 영화, HD 촬영 예정인 액션 퓨전 무술 영화를 기획 중입니다. 포스트모던은 푸옹 당과 포스트모던 아시아 부서의 합류를 계기로 글로벌 미디어 커뮤니티로 힘껏 나아갑니다.

오렌지 카운티 최대의 HD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 포스트모던이 더욱 나아졌습니다!

담당자: 푸옹 당 T.949.608.8700

pdang@postmodernasian.com

담당자: 마이클 보이드 T.949.608.8700

michaelb@postmoderncreative.com